

지성·주영 '兩朴의 힘'... 日 꺾다

'광속구 군단' 호랑이 2만 탈삼진 잡는다

선제골·마무리골 환상 합작
 한국, 日 안방서 2대0 완승

축구 태극전사들이 일본의 안방에서 또 한 번 '울트라 넷폰'을 울렸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72 번째 한일전에서 '영원한 맞수' 일본을 상대로 기분 좋은 승전가를 부르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첫 원정 16강 진출 희망을 이어갔다.

한국은 24일 오후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전반 6분에 터진 박지성의 환상적인 선제 결승골과 후반 추가시간 박주영의 페널티킥 추가골을 앞세워 '속적' 일본을 2-0으로 완파했다.

민족의 명절 설이었던 지난 2월14일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축포 세 방을 쏘아 올리는 '도쿄 대첩'을 완성했던 태극전사들은 남아공 월드컵 개막을 18일 앞두고 일본을 또 한 번 침몰시켜 자신감을 충전했다.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최근 3경기 연속 무패(1승2무) 행진을 벌이며 역대 상대전적에서 40승20무12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지켰다.

지난 2007년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허정무 감독은 지난 2월 동아시아선수권 일본전 3-1 역전승과 대표팀 출정식이었던 16일 에콰도르전 2-0 승리에 이어 패조의 3연승 행진을 지휘했다. 취임 후 허정무호 성적은 A매치 38경기에서 21승13무4패.

반면 남아공 월드컵 4강 진출을 목표로 제시했던 일본의 오카다 다케시 감독은 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한일 맞대결에서 또 무릎을 꿇어 고개를 숙였다.

한국 대표팀은 25일 곧장 전지훈련지인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로 넘어가 벨라루스(30일), 스페인(6월3일)과 각각 평가전을 치르고 나서 '결전의 땅'인 남아공에는 6월 5일 입성한다.



24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일 축구대표팀 평가전에서 곽태휘가 헤딩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평가전 한국-일본 골 장면

박지성 선제골 (20분) / 김성圭 페널티킥 (75분)

경기 결과: 한국 2-0 일본

박주영 마무리골 (85분)

8개구단 중 최초-대기록 23개 남아

'광속구 군단' KIA 타이거즈가 탈삼진 수 집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가 이번주 프로야구 사상 첫 2만 탈삼진에 도전한다. 24일 현재 타이거즈 선수들이 기록한 탈삼진 개수는 1만9977개, 2만 고지에 23개가 부족하다.

KIA 투수들은 올 시즌 331개의 탈삼진을 뺏아내며 경기당 평균 7.5개의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다. 이 계산대로라면 이번주 KIA는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2만 탈삼진을 장식한 팀이 될 전망이다.

2만 탈삼진에 도전하는 KIA 마운드는 팀 순위 상승에도 앞장선다.

KIA는 4연패 뒤 2연승으로 한 주를 마감하면서 5할 승률을 채웠다. 3위 삼성과는 1게임차. KIA가 이번주 하위권 팀인 LG와의 원정경기에서 이어 안방에서 한화와 만나는 것에 반해 삼성은 SK, 두산 1·2위 팀과의 합계군 대결을 앞두고 있다. 투·타의 불균형 속에 4위에 머물고 있는 KIA가 3위까지 치고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타격의 극심한 부진속에서도 4위를 수성해 온 KIA 마운드는 지난주 우천으로 두 경기를 쉬면서 숨을 골랐다. 과속운행을 했던 볼런지도 모처럼 여유로운 한 주를 보냈다. 여기에 새로 가세한 이대진이 완벽한 컨트론티미로 복귀 합격점을 받았고, 좌완 가름이 시달리고 있는 볼런에서 박경태의 활약이 눈부시다.

박경태는 최근 등판한 세 경기에서 3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완벽한 피칭을 선보이며 KIA 볼런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새 용병 플론과 마무리 유동훈의 움직임

프로야구 중간순위 (24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SK	31	12	0	0.721	2승
2	두산	26	17	1	0.591	2승
3	삼성	23	21	0	0.523	1승
4	KIA	22	22	0	0.500	2승
5	롯데	20	25	0	0.444	1패
6	LG	18	24	1	0.419	2패
7	넥센	18	27	0	0.400	3패
8	한화	17	27	0	0.386	1패

이 마운드의 변수다.

플론은 세 번째 등판이었던 23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2이닝동안 5개의 볼넷을 남발한 끝에 3실점을 하며 조기 강판됐다. 마무리 유동훈도 지난 19일 롯데와의 군산경기에서 뒷문 단속에 실패하며 올 시즌 5번째 볼넷을 기록했다. 두 선수의 부진 탈삼진이 속제로 남았다.

2만 탈삼진과 3위 자리에 도전하는 KIA 마운드의 첫 주자는 로페즈가 맡았다. 지난해 14승으로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던 로페즈는 올 시즌 마운드에서 조금만 모습을 보이며 단 1승을 거두는데 그치고 있다. 야수진들의 잇단 실책도 로페즈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지난 21일 넥센과의 경기에 깜짝 마무리 등판해 세이브를 챙겼던 로페즈는 2승을 놓고 25일 잠실벌에서 LG 김광삼과 맞붙는다.

올 시즌 8번의 등판이 모두 주삼 3연전에 이뤄졌던 로페즈는 처음으로 주중 경기 선발로 나서게 된다. 비 때문에 로테이션이 미뤄진 로페즈의 2승 달성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안방마님 김상훈 미트 해프닝

KIA 타이거즈 안방마님 김상훈이 '미트 해프닝'에 울고 또 웃었다.

김상훈은 지난 20일 롯데와의 군산 경기가 끝난 후 덕아웃에서 분신과도 같은 미트 2개를 분실했었다. 언뜻 통해 김상훈의 애타는 심정이 알려진 뒤 22일 사라졌던 미트 두 개가 '결실했다. 죄송하다'는 쪽지와 함께 구단 사무실로 배달됐다. 함께 분실했던 이영수의 배트 가방과 배트도 다시 주인의 품에 안겼다.

이번에 되찾은 미트는 지난 미야자키 캠프 때부터 애지중지 공을 들여 길게 들여놓았던 미트다. 자신의 손에 익게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미트는 포수들에게는 분신이나 다름 없는 물건이다. 미트 때문에 낙담했던 김상훈의 얼굴에는 당연히 웃음꽃이 가득 피었다.

하지만 분신을 되찾은 김상훈은 23일 안방을 지키지 못했다. 21일 차일목의 장비를 빌려 훈련을 했던 김상훈은 이날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했다. 김상훈은 경기가 끝난 후 '장비가 없어 안방을 지키지 못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오른쪽 장판지가 좋지 않아 23일 넥센과의 경기에서도 포수 대신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월드컵 응원하며 먹고 싶은 것 "맥주와 치킨"

롯데마트 설문조사

남아공 월드컵 경기를 관전하고 응원하는 남녀의 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롯데마트가 남성 896명·여성 1164명을 설문조사해 2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내달 23일 새벽(한국시각)에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나이지리아전을 꼭 보겠다는 여성 응답자 비율은 남성(79.1%)보다 낮은 54.5%였다.

또 나이지리아전을 시청할지를 이전의 두 경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남성은 15.4%뿐이었으나 여성은 30.2%나 됐다.

월드컵 시즌에 불편하거나 고민되는 점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61.1%는 '열편 응원, 졸어드는 잠으로 인한 피로'를 꼽았지만, 이를 고민하는 여성 응답자는 36.7%에 불과했다.

여성 응답자의 26.5%는 '음주·야식 등으로 인한 다이어트 실패'를 걱정했다.

그러나 경기 시청 장소나 시청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에서는 남녀에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73.3%가 집에서 편하게 보겠다고 답한 반면, 거리 응원에 나설겠다는 응답자는 13.8%에 그쳐 길거리 응원 분위기가 아직 고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원 중 먹고 싶은 음식으로는 치킨(57.1%)과 과자나 튀포 등 마른안주(20.9%)가 주로 꼽혔고, 주류로는 맥주(78.3%)를 지적인 응답이 많았다.

/연합뉴스

동성고 청룡기야구 8강 진출

동성고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신일고를 제압했다.

동성고는 지난 23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신일고와의 경기에서 10회 승부처기 끝에 10-8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다.

1회초 동성고가 이영기의 2타점 3루타와 배동준의 1타점 적시타로 먼저 3점을 뽑았지만 1회말 신일고 하주석에게 2타점 적시타를 얻어맞으면서 점수는 3-2가 됐다.

6-3으로 앞서던 6회말 동성고가 2사 1루

에서 연속 안타로 2점을 내준 뒤, 7회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을 허용했다. 이후 추가 득점에 실패한 양팀은 연장 승부처기에 돌입했다. 10회초 동성고가 연속안타와 실책, 연속 사사구를 묶어 대거 4득점에 성공했다. 신일고는 폭투와 땅볼로 2점을 추가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성고는 오는 25일 오후 6시30분 경남고와 4강행을 다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월드컵 응원하며 먹고 싶은 것 "맥주와 치킨" - 롯데마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드컵 시즌에 불편하거나 고민되는 점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61.1%는 '열편 응원, 졸어드는 잠으로 인한 피로'를 꼽았지만, 이를 고민하는 여성 응답자는 36.7%에 불과했다. 여성 응답자의 26.5%는 '음주·야식 등으로 인한 다이어트 실패'를 걱정했다.

동성고 청룡기야구 8강 진출 - 동성고는 지난 23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신일고와의 경기에서 10회 승부처기 끝에 10-8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다. 1회초 동성고가 이영기의 2타점 3루타와 배동준의 1타점 적시타로 먼저 3점을 뽑았지만 1회말 신일고 하주석에게 2타점 적시타를 얻어맞으면서 점수는 3-2가 됐다. 6-3으로 앞서던 6회말 동성고가 2사 1루에서 연속 안타로 2점을 내준 뒤, 7회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을 허용했다. 이후 추가 득점에 실패한 양팀은 연장 승부처기에 돌입했다. 10회초 동성고가 연속안타와 실책, 연속 사사구를 묶어 대거 4득점에 성공했다. 신일고는 폭투와 땅볼로 2점을 추가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성고는 오는 25일 오후 6시30분 경남고와 4강행을 다투게 된다.

롯데마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드컵 시즌에 불편하거나 고민되는 점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61.1%는 '열편 응원, 졸어드는 잠으로 인한 피로'를 꼽았지만, 이를 고민하는 여성 응답자는 36.7%에 불과했다. 여성 응답자의 26.5%는 '음주·야식 등으로 인한 다이어트 실패'를 걱정했다.

동성고 청룡기야구 8강 진출 - 동성고는 지난 23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신일고와의 경기에서 10회 승부처기 끝에 10-8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다. 1회초 동성고가 이영기의 2타점 3루타와 배동준의 1타점 적시타로 먼저 3점을 뽑았지만 1회말 신일고 하주석에게 2타점 적시타를 얻어맞으면서 점수는 3-2가 됐다. 6-3으로 앞서던 6회말 동성고가 2사 1루에서 연속 안타로 2점을 내준 뒤, 7회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을 허용했다. 이후 추가 득점에 실패한 양팀은 연장 승부처기에 돌입했다. 10회초 동성고가 연속안타와 실책, 연속 사사구를 묶어 대거 4득점에 성공했다. 신일고는 폭투와 땅볼로 2점을 추가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성고는 오는 25일 오후 6시30분 경남고와 4강행을 다투게 된다.